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2월 01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분석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사, 추측, 기준, 근거의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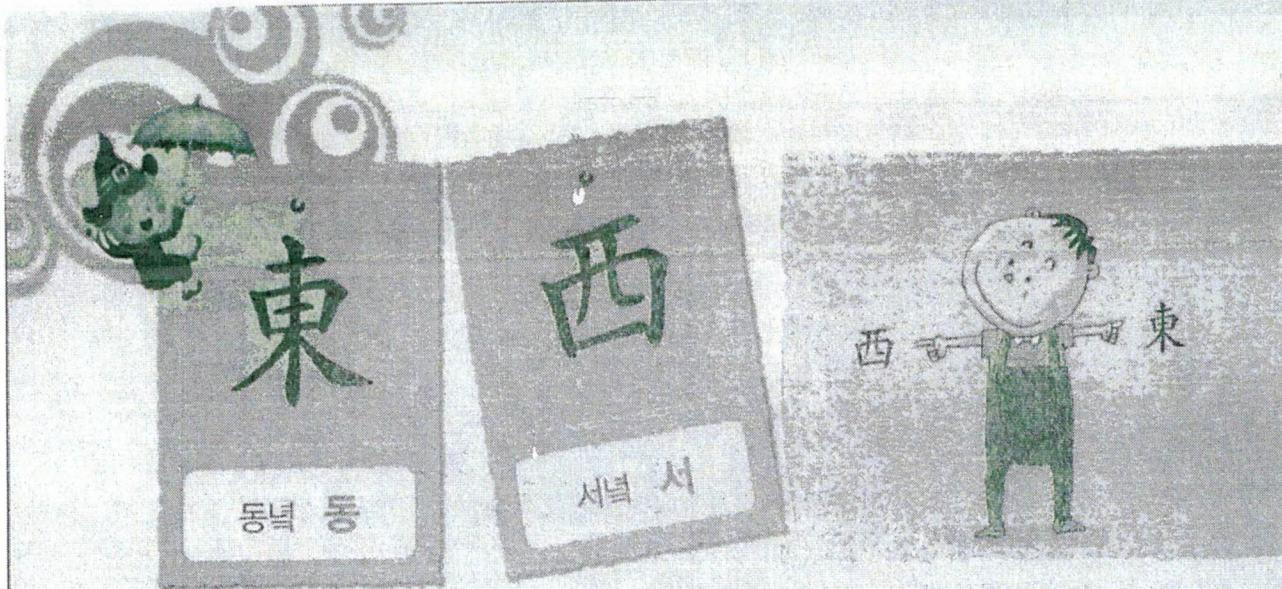
교시	수업 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 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분석하며 글을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부사, 추측, 기준, 근거)
4교시 12:00-12:40	줌바수업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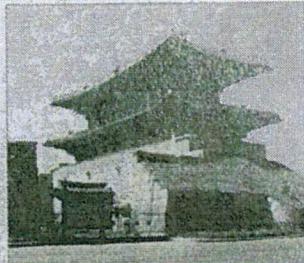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 자료(조선 관련)
4. 어휘

<분석하며 글 읽기> 공부할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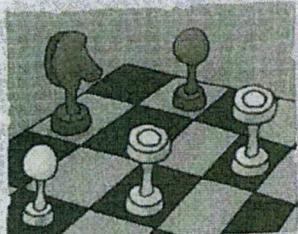
1. 분석 :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2. 구성 :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 이론 결과.
3. 가정 :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4. 경사 : 비스듬히 기울어짐. 또는 그런 상태나 정도. ‘기울기’로 순화.
5. 완만하다 : 경사가 급하지 않다.
6. 저격 : 일정한 대상을 노려서 치거나 총을 쏘.



活用
어디에 쓰일까요?



우리 나라의 보물 제1호는 東大門(동대문)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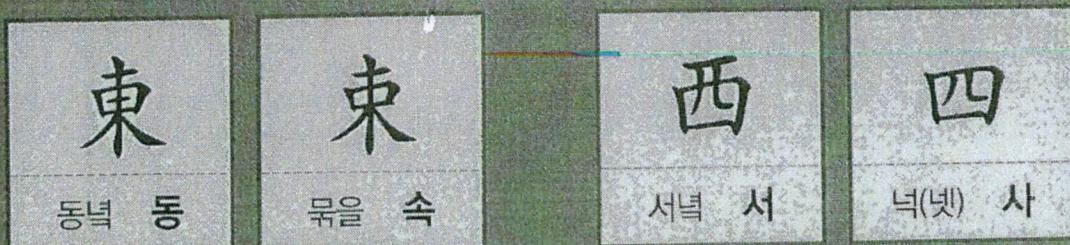
西양 장기를 '체스'라고 합니다.

성악은 통통!
한자는 쑥쑥!



모양이 비슷해요!

★ 모양이 서로 비슷해도 음과 뜻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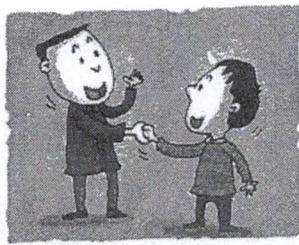
남녘 날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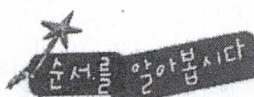
북녘 날 / 달아날



해안에는 아름다운 섬이 많습니다.



南韓(남한)과 北韓(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東

西

南

北

대화



지영: 제니 씨, 마이클 씨와 첫 데이트 어땠어요?

제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장면이 너무 낯 뜨거워서 보다가 나왔어요.

지영: 그래서 바로 집에 왔어요?

제니: 아니요. 마이클 씨가 음악회에 가자고 해서 '오페라 하우스'에 갔어요.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내 휴대폰이 크게 울려서 정말 낯 뜨거웠어요.

지영: 휴대폰을 꺼 놓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니: 네, 그보다 더 낯 뜨거웠던 일은 음악회가 끝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치마가 찢어진 거예요. 마이클 씨가 보고 있었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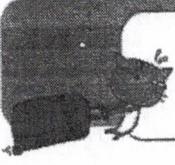
* 낯(이) 뜨겁다: ① 매우 부끄럽다 ② 보기애 민망하다

활용예문

- ▶ 시험 볼 때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서 낯 뜨거웠어요.
- ▶ 물건 값을 심하게 깎는 친구 때문에 낯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 ▶ 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애정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맞아요. 낯 뜨거울 때가 많아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데이트 | <input type="checkbox"/> 낯 | <input type="checkbox"/> 뜨겁다 | <input type="checkbox"/> 음악회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input type="checkbox"/> 울리다 | <input type="checkbox"/> 더구나 |
| <input type="checkbox"/> 계단 | <input type="checkbox"/> 넘어지다 | <input type="checkbox"/> 찢어지다 | <input type="checkbox"/> 벨소리 | <input type="checkbox"/> 애정 표현 | <input type="checkbox"/> -자고 하다 | |



함께해요



다음의 질문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

나는...

친구는...

① 가장 낯 뜨거웠던 일은 뭐예요?

② 가장 기뻤던 일은 뭐예요?

③ 가장 슬펐던 일은 뭐예요?

④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예요?

⑤ 가장 무서웠던 일은 뭐예요?

⑥ 가장 부러웠던 일은 뭐예요?

⑦ 가장 괴로웠던 일은 뭐예요?

⑧ 가장 당황했던 일은 뭐예요?

⑨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뭐예요?

⑩ 가장 고마웠던 일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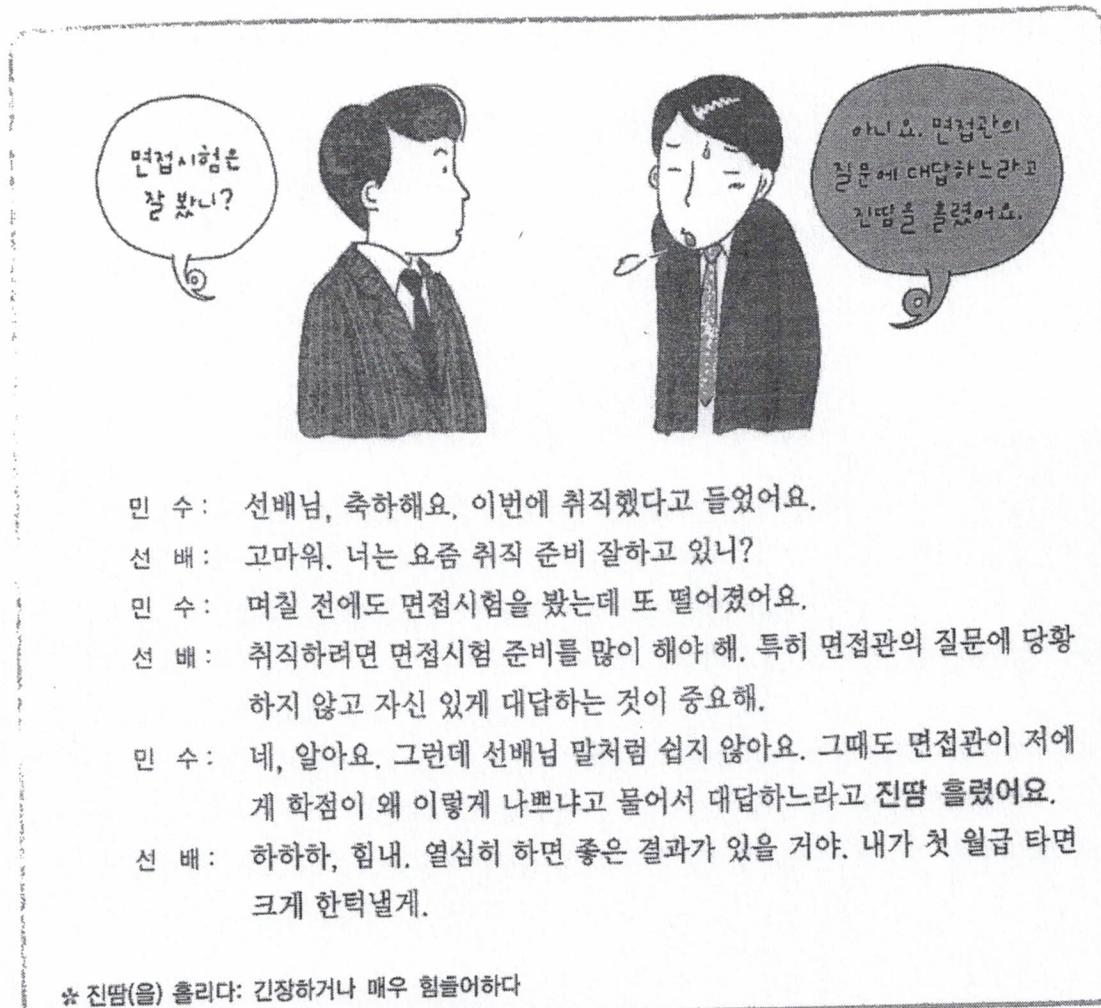
한 걸음 더

▶ 얼굴(이) 뜨겁다(=) 학생들의 이상한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 낯(이) 익다(?) 전에 본 적이 있어서 알아 볼 수 있다
낯이 익은 얼굴이어서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 뜨겁다❷ •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 영화 속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

대화



민 수: 선배님, 축하해요. 이번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선 배: 고마워. 너는 요즘 취직 준비 잘하고 있니?

민 수: 며칠 전에도 면접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선 배: 취직하려면 면접시험 준비를 많이 해야 해. 특히 면접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해.

민 수: 네, 알아요. 그런데 선배님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때도 면접관이 저에게 학점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물어서 대답하느라고 진땀 흘렸어요.

선 배: 하하하, 힘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첫 월급 타면 크게 한턱낼게.

* 진땀(을) 흘리다: 긴장하거나 매우 힘들어하다

활용예문

- ▶ 어려운 문법을 설명하느라고 진땀 좀 흘렸어요.
- ▶ 고장 난 라디오를 고치느라 진땀 흘렸다.
- ▶ 가: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
나: 버스를 잘못 타서 진땀을 흘렸어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면접시험 | <input type="checkbox"/> 면접관 | <input type="checkbox"/> 당황하다 | <input type="checkbox"/> 자신(이) 있다 | <input type="checkbox"/> 학점 |
| <input type="checkbox"/> 진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흘리다 | <input type="checkbox"/> 결과 | <input type="checkbox"/> 타다 | <input type="checkbox"/> 고치다 |
| | | | | <input type="checkbox"/> -느라(고) |

함께해요



다음은 어느 회사의 재미있는 면접 질문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진땀 흘리지 말고 재치 있게 대답해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에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세 사람들은 예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이성형입니다. 모두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중에 당신의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



- ① 두 회사에 동시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 ② 회사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 ③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무인도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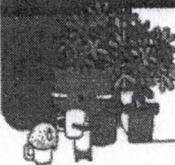
여러분이 면접관이 되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

한 걸음 더

- ▶ 진땀(을) 빼다(=) 하루 종일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느라고 진땀 뺐어요.
- ▶ 피땀(을) 흘리다(今)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고생하다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 ▶ 흘리다 ◆
 - 영화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 열쇠를 어디에 흘렸나 봐요. 찾아도 안 보여요.
 -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

21_ 낯(이) 뜨겁다 22_ 진땀(을) 흘리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낯이 뜨겁다

낯이 익다

진땀을 흘리다

피땀을 흘리다

1 가: 요즈음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없어요.

나: 맞아요. 폭력적이고 _____ 장면들이 많지요?

2 가: 오늘 발표는 잘 끝났어요?

나: 아뇨, 준비를 충분히 못 해서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_____.

3 가: 저분이 _____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신 분이지요?

나: 네. 참 좋은 분이세요.

4 가: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참 _____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 혹시 어릴 때 고향 친구 아니에요?

5 가: 요코 씨가 어린 조카들을 보느라고 _____ 고 있을 거 예요.

나: 제가 아이를 잘 보는데 가서 좀 도와줄까요?

6 가: 저기 술 취한 아저씨 좀 봐요. 빈 병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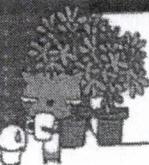
나: 아이고,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_____.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낯(이) 뜨겁다 / 진땀(을) 흘리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경하: 요코 씨, 졸업식에 입고 갈 옷
은 샀어요?



요코: 어휴, 사간 샀는데 어제 옷가
게에서 낯 뜨거워 죽는 줄 알
았어요.



경하: 무슨 일 있었어요?

요코: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있어서
한번 입어 보려고 했는데 제게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치수 작은
옷을 입었더니 너무 작아서 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경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코: 점원들이 모두 모여 도와줘서 겨우 옷을 벗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손
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낯 뜨거웠어요. 아무튼 옷을 벗느라고 진땀 좀 흘
렸지요.

경하: 호호호, 그랬군요. 저도 며칠 전에 소개팅에서 낯 뜨거운 일이 있었어요.

요코: _____

경하: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요코는 왜 옷가게에 갔어요?
- 2 요코는 옷가게에서 왜 낯이 뜨거웠어요?
- 3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진땀을 흘렸던 일은 뭐예요?

<사육신의 눈물>

1. 어린 왕을 위하여

계유정난 후 성삼문과 몇몇 신하들은 단종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세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모아 전하의 왕위를 찾아 드립시다."

어느 날, 세조가 창덕궁 광연전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대하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세조는 억지로 왕의 자리를 빼앗았지만 나라는 잘 다스리고 있다고 뽐내려는 것이었지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세조를 없애고 상왕(단종)을 모십시오."

"그래요. 연회가 시작되면 내가 적들을 없애겠소."

나라의 제일가는 장수인 유용부가 칼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성삼문과 일행은 광연전으로 갔어요.

"잠깐 멈추시오."

성삼문, 유용부 일행이 막 광연전에 들어서려는데 세조를 따르는 신하인 한명회가 막아섰어요.

“신하들은 운검도 가지고 들지 말라는 상감 마마의 분부가 있었소이다.”

운검은 왕을 호위하는 직책을 가진 성승과 유응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칼을 두고 가라니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운검을 쓰는 것은 나의 직책이거늘, 어찌 막는 것이냐!”

성승이 나서려 하자 성삼문이 슬쩍 고개를 저었어요.

“세자가 없으니, 나머지를 처치해도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큰일을 다음으로 미루지요.”

성삼문의 말에 유응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을 미루면 탄로날 위험이 있으니 지금 저들을 없애야 하오.”

그러나 성삼문은 오히려 유응부를 설득했어요.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어찌 그리 조급해하십니까?”

결국 유응부는 손에 쥐었던 큰 칼을 풀어 놓고 성삼문과 함께 연회청에 들어섰어요. 그 곳에는 세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성삼문은 왔느냐?”

그 때 별안간 세조가 성삼문을 찾았어요.

“예, 소인 여기 있나이다.”

성삼문은 갑작스런 부름에 주춤거리며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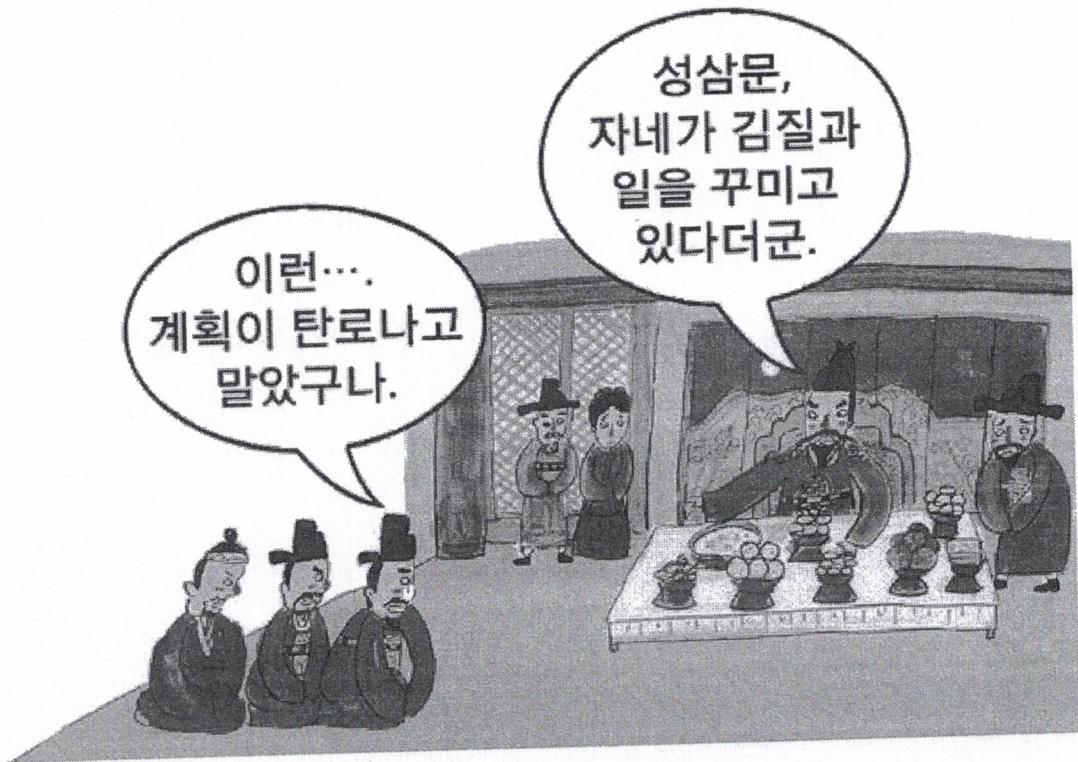
“성삼문 자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데?”

놀라 고개를 든 성삼문의 눈에 김질이 들어왔어요. 김질은 세조의 옆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뿔싸! 김질이 우리를 배반하였구나!’

“성삼문, 자네가 얼마 전에 내게 말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연회에서 정인지, 한명희, 권람 등 대신들과 상감 마마를 없애 버리고 단종 상왕을 왕으로 모시기로 말일세.”

김질이 다 죽어 가는 소리로 말했어요.



“으하하하하!”

이미 일을 그르친 것을 안 성삼문은 호탕하게 웃었고 김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세조에게 덧붙여 말했어요.

“박팽년이 단종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도와 주면 저의 장인인 정창손을 영의정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장인을 설득하여 함께 참가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질의 말이 끝나자 세조가 주안상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성삼문, 너는 어찌하여 역모를 꾀하였느냐?”

〈사육신과 생육신〉

사육신은 세조에 의해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의를 했다가 먼저 탄로나 죽음을 당한 여섯 명을 말해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가 있지요. 한편, 죽지는 않았지만 조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선비들도 있었어요. 이맹전, 남효온, 김시습, 조여, 원호, 성담수가 그들이지요. 생육신으로 불리는 이들 중 김시습은 사육신이 처형을 당하자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기도 했어요.

2. 두려움 없는 죽음

“김질의 말이 다 옳소이다. 나리와 간신들이 나이 어린 단종을 내쫓지 아니하였소? 그러니 신하의 도리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빼앗긴 왕위를 상왕께 다시 찾아 드리려 했을 뿐이오.”



성삼문의 거침없는 말을 들자 세조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가 치솟았어요.

“네 놈이 역모를 꾸민 주제에 충신 행세를 하려 드는구나!”

“나리는 왕위를 훔쳤소이다. 이 성삼문은 신하된 몸으로서 쫓겨난 임금을 차마 볼 수 없소이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는 일, 신하가 왕을 모시는 것이 어찌 역모란 말이오!”

성삼문은 오히려 세조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세조가 다시 비웃는 얼굴로 바닥에 무언가를 던졌어요.

“이것은 녹봉을 받았다는 문서다. 너는 어찌 내가 준 녹을 받았으면서 신하의 도리는 저버리는 것이냐?

“허허허, 소인은 나리가 주는 녹봉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소. 의심이 나면 내 집에 가 보시오.”

성삼문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저놈을 불에 달군 다음 옥에 가두도록 해라!”

결국, 성삼문 등이 계획했던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일로 성삼문을 비롯한 여섯 명의 충신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상왕이었던 단종은 노산군으로 지위가 더 낮아지게 되었어요.



3. 내용 정리

계유정난 후 권력을 잡았던 수양 대군은 2년 뒤 단종을 밀어 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그러자 성삼문과 몇몇 신하들은 세조를 없애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으로
모십시오.

성삼문





단종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은 세조에게 먼저 알려졌고, 박팽년 등 신하들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은요...
성삼문이요!

김질

네가 그런거
맞잖아.

성삼문,
네가 나를 죽이고
단종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그렇소.
해가 둘일 수 없듯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소.

살려 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 때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죽은 여섯 명을 가리켜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01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1. 國文(문) :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2. 全國(전) : 나라 전체
3. 韓食(식) :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
4. 南韓(남) :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의 남쪽 땅
5. 大氣(기)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6. 大門(문) : 집이나 건물의 큰 문
7. 民家(가) :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8. 國民()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보기>에서 골라 답하세요.

1.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 두 해만에 열 두살난 세자를 두고
죽은 왕은?
보기
① 세종대왕
② 세자
③ 세자
④ 세자
2. (1번의 답) 이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은?
보기
① 세종대왕
② 세자
③ 세자
④ 세자
3. 나이 어린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하자 정승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에 불만
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세종의 둘째아들이자 어린 임금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보기
① 세종대왕
② 세자
③ 세자
④ 세자
4.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죽이고 황보인과 자신의 동생
인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 하여 죽였습니다.
보기
① 세종대왕
② 세자
③ 세자
④ 세자
5.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기
① 세종대왕
② 세자
③ 세자
④ 세자

2018년 12월 01일

한라반 쪽지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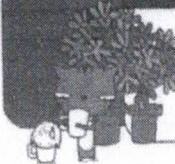
이름 :

▶ 문장을 읽고 아래의 단어들을 이용해 문장을 만드세요.

지열, 전답, 구력, 봉양, 악정, 교정

1. 병든 노모는 딸과 사위의 극진한 ()을 받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2. 아이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도토리를 주워 ()에 담았다.
3. 일제 때는 왜놈의 ()에 시달려 고향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4. 아버지는 () 몇 평을 처분했다.
5.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세 번씩 ()에 울려 퍼졌다.
6.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세 번씩 ()에 울려 퍼졌다.

19_ 기(가) 막히다 20_ 바람(을) 피우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놓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기가 막히다

기가 죽다

바람을 피우다

바람을 넣다

1 가: 요즘 설악산은 단풍이 들어서 _____ 게 아름답겠지요?

나: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어서 단풍 구경 가요.

2 가: 시험에 또 떨어지다니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나: 너무 _____ 지 마.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3 가: 소현 씨가 이번 여행을 안 가겠대요.

나: 네?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_____ 사람이 안 간다니 말 도 안 돼요.

4 가: 준기 씨는 혹시 _____ 적이 있어요?

나: 글쎄요. 비밀이에요.

5 가: 민수가 약속을 또 잊어버렸어요. 정말 _____.

나: 그만 화 푸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6 가: 그 친구가 _____ 줄 정말 몰랐어.

나: 나도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변했을까?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문제

1~3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고향 음식을 () 먹었다.
① 잔뜩 ② 괜히 ③ 반드시 ④ 좀처럼
2.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 나와 있다.
① 혹시 ② 아까 ③ 자세히 ④ 도저히
3. 그는 그 일에 대해서 () 입을 열지 않았다.
① 마침 ② 끝내 ③ 점차 ④ 대충

4~6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4. 그의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까 분명히 집에 있을 거예요.
① 잠시 ② 미리 ③ 무조건 ④ 확실히
5. 그는 대사를 전부 외울 정도로 이 영화를 많이 봤다고 한다.
① 모두 ② 함께 ③ 설마 ④ 훨씬
6. 유학생들의 졸업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① 별로 ② 점점 ③ 잠시 ④ 금방

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7.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름과 학번을 쓰십시오.
① 계속 ② 항상 ③ 나중에 ④ 마침내

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8. ① 나는 아까 식당에 가려고 한다.
② 이렇게 좋은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③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④ 분명히 밖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연습

1~3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으)ㄹ 텐데

1. 이 일은 김 대리가 제일 잘할 것이다 / 김 대리에게 맡기다



-(으)ㄹ까 봐(서)

2. 시험에 떨어지다 / 걱정했는데 합격해서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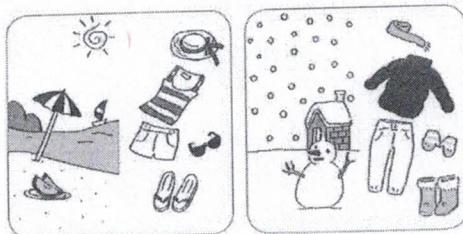
-기에는

3. 이 일을 오늘 다하다 /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일까지 하다



4~5 다음 그림을 보고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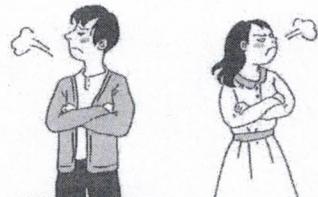
4.



-에 따라서



5.



-나 보다



6~10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나/(으)/느가 보다 -기에는 -(으)ㄹ 텐데 -(으)/ㄹ까 봐(서) -에 따라서

6. 오늘 안에 다 _____ 일이 너무 많아요. (끝내다)
7. 수미 씨가 자꾸 웃는 걸 보니까 기분 좋은 일이 _____. (있다)
8. 과장님의 약속을 _____ 아까 확인 전화를 했어요. (잊어버리다)
9. 시험 _____ 장학금이 달라집니다. (결과)
10. 오늘은 9시부터 수업을 _____ 아직도 학교에 안 가면 어떡하니? (시작하다)

11~15 다음 문장을 연결하십시오.

11. 사람은 날씨에 따라서 . • 우산을 가져 왔어요.
12. 교실에 불이 다 꺼진 걸 보니 . • 어떡하지요?
13. 혹시 비가 올까 봐서 . • 기분이 달라져요.
14. 수업 시간에 많이 늦었을 텐데 . • 너무 많아요.
15. 이 단어를 모두 외우기에는 . • 학생들이 다 갔나 봐요

16~17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나/(으)/느가 보다 -기에는 -(으)ㄹ 텐데 -(으)/ㄹ까 봐(서)

16. 가: 오늘 안에 다 끝나기에는 _____?
나: 당연히 제가 도와 드려야지요.
17. 가: 하루 종일 하품을 하는 걸 보니 _____.
나: 네, 어젯밤에 악몽 때문에 잠을 좀 설쳤거든요.

문제1

1~2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김 대리는 먼저 퇴근했나요?

나: 가방이 없는 걸 보니까 ().

- ① 퇴근하겠어요
② 퇴근했나 봐요
③ 퇴근하면 돼요
④ 퇴근할까 해요

2. 가: 이번에 새로 생긴 백화점에서 사는 게 어때요?

나: 그 백화점은 () 지난번에 갔던 곳에서 사는 게 어때요?

- ① 비싸려고
② 비싼 김에
③ 비쌀 텐데
④ 비싼 데다가

3~4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3. ① 길이 많이 막힐 테니까 어떡하지요?

- ② 하늘이 점차 흐려지는 걸 보니 조금 후에 비가 오려나 봐요.
③ 정미 씨가 저희 집을 못 찾을까 봐서 나가서 기다리려고요.
④ 시험이 어려울 텐데 도대체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4. ①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기에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

- ②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유학을 가기에는 충분해요.
③ 아무리 노력해 봤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돼요.
④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요요현상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찼어요.

5~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5.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음식이 맛있나 봐요.

- ① 맛있거든요
② 맛있는 법이에요
③ 맛있는 편이에요
④ 맛있는 모양이에요

6. 오후부터 추워질 테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 | | |
|----------|----------|
| ① 춥더라도 | ② 추워서는 |
| ③ 추워질 텐데 | ④ 추울까 봐서 |

7. 가: 공원이 왜 이렇게 시끄럽죠?

나: 오늘 공원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 | | |
|------------|------------|
| ① 시작됐나 봐요 | ② 시작될 만해요 |
| ③ 시작되려고 해요 | ④ 시작됐어야 해요 |

8. 가: 오늘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나: 미안해. 오후에 친구가 올지도 몰라서 같이 못 갈 것 같아.

- | | |
|-----------|------------|
| ① 올까 봐 | ② 오는 길에 |
| ③ 오는 중이라서 | ④ 올 리가 없어서 |

9. 가: 어제 민수가 스키 타는 거 보셨어요?

나: 넘어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제법 잘 타더라고요.

- | | |
|----------|-----------|
| ① 넘어진다면 | ② 넘어질 텐데 |
| ③ 넘어질까 봐 | ④ 넘어질 정도로 |

10. 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요?

나: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 | | |
|----------------------|----------------------|
| ① 누구와 결혼하든 마찬가지예요 | ②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
| ③ 누구와 결혼하든지 행복하지 않아요 | ④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행복할 거예요 |

문제2

1~5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식당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 유명한 식당인 것 같다.

- | | |
|----------|------------|
| ① 많은 대신에 | ② 많을 만해서 |
| ③ 많을까 봐서 | ④ 많은 걸 보니까 |

2. 여행지 선택 및 여행 기간은 여러분의 () 결정될 것입니다.

- | | |
|-----------|-----------|
| ① 투표에 관해서 | ② 투표에 비해서 |
| ③ 투표에 의해서 | ④ 투표에 대해서 |

3. 밤을 새웠으면 ()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세요.

- | | |
|-----------|-----------|
| ① 피곤한 데다가 | ② 피곤할 테니까 |
| ③ 피곤해 가지고 | ④ 피곤한 반면에 |

4. 가: 혹시 철수 씨 보셨어요?
나: 아까 도서관에 간다고 했으니까 도서관에 ().

- | | |
|--------|--------|
| ① 있을걸요 | ② 있잖아요 |
| ③ 있거든요 | ④ 있기는요 |

5. 지금 사는 방은 둘이 () 좀 좁아서 넓은 방을 구하기로 했다.

- | | |
|--------|--------|
| ① 사느니 | ② 살아야 |
| ③ 사느라고 | ④ 살기에는 |

6~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6. ① 반바지를 입기에는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다.
② 동생의 눈이 부은 걸 보니 많이 운 모양입니다.
③ 막차를 놓치지 않을까 봐 죽을힘을 다해 뛰어갔다.
④ 우리 회사의 존폐는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에 달려 있다.

7. ① 단어 하나만 찾고 돌려 드릴 테니까 사전 좀 빌려 주세요.
② 비행기 표 값은 언제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③ 예전에는 못 보던 반지를 끈 걸 보니 사귀는 사람이 생기나 봐요.
④ 이번 학기 성적은 시험 점수와 평소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8~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8. 시장에서 음식 재료를 사온 걸 보니까 요리를 하려나 봐요.
① 할 모양이에요 ② 하는 법이에요
③ 할 지경이에요 ④ 하려던 참이에요

9. 가 : 오늘 영희 씨 보셨어요?
나 : 네. 좀 전에 컴퓨터로 찾을 게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컴퓨터실에 갔을 거예요.

- ① 갔던데요 ② 갔을걸요
③ 갔거든요 ④ 갔잖아요

10. 우리 팀의 상대가 어떤 팀이 될지는 이번 경기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① 결과만 못하다 ② 결과였으면 한다
③ 결과에 달려 있다 ④ 결과일 리가 없다